

어린이집탐방

“즐겁게 지내자·건강하게 자라자·참되게 자라자”

거진어린이집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질 높은 보육활동 전개 ... 보육시설 평가 인증 우수한 성적으로 재인증

고성군 거진을 거진 11리에 위치한 국공립 거진어린이집(원장 황귀옥)은 1981년 3월 32명의 원생으로 거진 새마을협동유아원으로 개원해 현재까지 96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거진어린이집은 농어촌 지역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황귀옥 원장

거진 어린이집은 고성군의 지원으로 2004년 12월 지상 1층의 건물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새롭게 단장해 환경개선에 힘썼으며, 지난 18일 보육시설 평가 인증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현재 56명의 원생과 교직원 7명이 ‘즐겁게 지내자, 건강하게 자라자, 참되게 자라자’는 원훈 아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해 자신감 있는 어린이, 좋은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통해 책임감 있는 어린이,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며 타인을 배려 할 줄 아는 어린이, 문제 상황을 창의와 긍정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어린이’를 보육목표로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거진어린이집은 표준 보육과정의 다양한 영역별교육으로 기본생활과 신체활동, 사회활동,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창의적이고 실질적 보육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역 주요 기관을 견학하고 각종 행사와 캠프에 참여해 지역사회 연계와 능력 계발 위주의 차별화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가족·교사 지역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해 질 높은 보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봉사에 힘쓰고 사회적 소외대상인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에 주력해 사회, 정서, 언어 증진발달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주요 체험관을 방문해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부모를 초청해 각국의 문화를 알아가는 다문화 학부모 초빙 교육을

운영했다.

주변에 텃밭 체험장을 조성해 생생한 현장 생태체험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유아 건강과 안전교육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

심으로 불조심 습관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아의 각종사고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병행해 교육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 약물 오남용 안전교육을 비롯해 성 안전교육, 실종, 유괴예방 안전교육 등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 특화 프로그램으로 래터랜드, 가베수업, 텔타 샌드, 폴리 등을 통해 창의력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 거진어린이집 수업 모습.

황귀옥 원장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보육사업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실천하고 봉사하는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되도록 경주하겠다”고 했다.

또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어려운 가정 영·유아의 교육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건강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24>

고성팔경(高城八景)⑧ 울산바위 I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간성군 편「산천조」에는 천후산(天吼山) 고을 남쪽 70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미시파령(彌時坡嶺)은 고을 서남쪽 80리쯤에 있다. 길이 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고 하였다. 현재의 고성군 행정구역상 미시령과 울산바위(950m)가 관할지역이며 양양, 속초, 인제 세 지역의 경계지역이며 울산바위에 오르면 사방으로 펼쳐지는 설악산과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준다.

남효온(南孝溫)의『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1485년(성종 16) 4월부터 총 35일간 금강산 일대와 동해안의 간성을 유람하면서 보았던 산 이름은 천보산과 명산이라고 달리 하였다. 인용문을 나열하면 “대개 산의 모양이 하늘의 남북에 우뚝 솟아 큰 땅덩어리로 누르고 있는데 큰 봉우리가 36봉이요, 작은 봉우리가 1만 3천봉이다. 한 가지가 남으로 이백여 리를 뻗었는데 산 모양이 높고 뾰족하여 대략 금강의 분상과 같은 것이 설악산이요, 그 남쪽에는 소솔령이 있다. 동쪽의 한 가지가 또 하나의 작은 산악을 이뤘으니 천보산(天寶山)인데, 하늘이 장차 눈이나 비가 오려면 산이 저절로 운다. 그러므로 이름을 명산(鳴山, 우는 산)이라 한다. 명산이 또

양양 고을 후면을 돌아서 바닷가로 닿는데 오봉산이 특별히 솟으니 낙산이다”

이식(李植)의『수성지(水城誌)』= 태당 이식(李植) 간성현감을 재임 후인 1633년에 수성지를 집필하였다. 수성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후산은 군의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돌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라고 전해오고 있다. 양양과 간성사이에 큰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 이 산에 성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높은 곳에 있는 바위가 부처와 같고, 그 옆에 있는 큰 돌이 마치 쌀 곳간 같아서 향간에서는 부르기를 禾岩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防城가 이곳에 있어는데 고점라라는 돌이 적에게는 양곡을 쌓아둔 것으로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화암(禾巖)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윤휴의『백호전서(白湖全書) 제34권 잡저(雜著)』,『풍악록(楓岳錄)』= 백호 윤휴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곳을 찾아와서 이와 같은 내용을 남겼다. 동구 밖을 나와 설악산을 바라보며 15리 남짓 가서 신흥사(神興寺)에 들렀더니 종들이 견여를 가지고 동구 밖까지 환영을 나왔다. 그 절은 설악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절로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전각(殿閣)이나 현루(軒樓)가 역시 규모가 큰 사찰 중의 하나였고,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설악산과 천후산(天吼山)의 깎아지른 봉우리와 가파른 산세는 마치 풍악

문헌을 통해 본 울산바위

(楓岳)과 기결함을 겨루기라도 하는 듯했다.

이해조(李海朝)의『명암집권지사(鳴巖集卷之四)』= 1689년(숙종 15) 금강산 유람하면서 천후산을 찾은 명암(鳴巖) 이해조(李海朝, 1660~1711)는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시에는 “천후산은 부(府)에서 북쪽으로 65리에 있다. 석봉은 깎은 듯이 가파르고 기이하고 장관이다. 세속에서 작은 금강이라고 부르는데 즉 설악산의 한 갈래로서 산허리에 바람구멍이 두 개가 있어 큰 바람이 불려고 하면 산이 스스로 먼저 운다고 하여 이름 하였다.

이헌경(李獻慶)의『간옹선생문집권지이십(艮翁先生文集卷之二十)』= 1758년(영조 34) 양양부사 이헌경(李獻慶, 1719~1791)의 「천후산기문(天吼山記文)」에 따르면 ‘설악의 왼쪽은 천후산이라고 말한다. 산을 통하는 모든 것들이 돌이고 병풍과 부채 같아서 담장 같은 모양이며 칼날처럼 삐죽삐죽 천길 높은 절벽이다. 그 위에는 구멍이 있는데 하늘이 장차 큰 바람이 일며 그 구멍에서



먼저 운다고 하여 천후라고 이름을 하였다. ... 위에는 천후산(天吼山) 세자가 새겨져 있고 북쪽 절벽에 또 계조암(繼祖庵) 세자가 새겨져 있다. 필체가 장엄하게 따랐으며 모든 것이 윤순(尹淳)의 글씨라고 전한다. 일부 향토사학자들 간에는 계조암(繼祖庵)의 바위에 새겨진 각자, 繼祖屈(계조굴)은 정조 때 문인 윤사국(尹師國)이 쓴 글씨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